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오늘 시작

전북도, 20일까지 5일간 11개 유형 30개 훈련으로 나뉘어 현장 중심으로 실시

법국가적 총력 재난대응체계 확립을 위한 현장 중심의 재난대응 훈련이 전북도 전역에서 실시된다. <관련 사진 5면>

15일 전북도에 따르면 '재난대응 안전한국 훈련'이 16일부터 20일까지 5일간 11개 유형의 30개 훈련으로 나뉘어 실시된다.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은 지난 2005년부터 매년 사전 시나리오에 의거한 도상훈련 위주로 실시됐다. 이후 세월호 사고를 기점으로 실제 상황을 가정한 현장 중심 훈련으로 실

시해 협업기관과 현장과의 실천 대응 능력을 강화해 왔다.

올해 실시되는 훈련은 유도선 전북과 환경오염, 지진, 산불 등의 실제 상황에 맞춘 현장 훈련 중심으로 재난대응태세를 점검하고 도민들의 참여를 확대해 도의 재난 대응 역량을 배양하고 안전전북을 넘어 안전한국을 이루자는 데 그 목적을 둔다.

이번 훈련은 첫날 오전 6시에 실시되는 비상소집훈련을 시작으로 태풍, 집중호우 등 자연재해 대응 훈련으로 시작된다. 이후 원전사고, 유해화학

물질누출사고 등 복합재난에 대한 주민대피훈련 등 초동 대응태세를 점검한다.

특히 셋째 날은 2017년 세계 태권도 선수권 대회에 발맞춰 무주 태권도원에서 대청화재 및 지진 대비 등에 대한 훈련도 실시된다.

이어 넷째 날인 19일은 유도선 전북사고에 대비해 송하진 전북도지사가 주재하는 도상훈련과 현장훈련이 민·관 28기관의 500여명이 참여해 실시될 예정이다.

도 최병관 도민안전실장은 "매년 스

쳐지나가는 훈련이 되지 않도록 더욱 내실있는 훈련을 준비해 도민 모두에게 안전이 생활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며 "훈련의 미비점에 대해서는 다음 훈련에 반영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도는 '2016 재난대응안전한국훈련'을 도민들에게 적극적으로 알리기 위해서 TV, 라디오와 대중매체를 활용 적극 홍보하고, 지난 14일에는 '부처님 오신날'을 맞아 송 지사가 대대적인 홍보캠페인을 금산사 일원에서 실시한 바 있다. /정영수 기자

'대학연계 지역사회 창의학교' 워크숍

'대학연계 지역사회 창의학교' 워크숍이 지난 13일과 14일 양일간 완주 경천애인마을에서 전북대 등 5개대학 11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대학연계 지역사회 창의학교'는 대학생들의 창의적 아이디어를 도정에 반영하고, 대학생들이 지역사회 일꾼으로 성장해 나갈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지난해부터 추진됐다.

이번 워크숍은 대학생들의 아이디어 발굴을 위한 창의성 강화 및 피드백을 통한 내실 강화로 팀프로젝트의 성공적 추진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워크숍에서 김일재 행정부지

사는 "미래 전북도를 이끌어갈 주인공은 바로대학생들이다"면서 "여러분의 창의적 아이디어가 지역을 바꿀 수 있다는 자부심을 가지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번 워크숍에 참여한 원광대 최원영 학생은 "워크숍을 통해 창의학교 과정을 더욱 이해하고, 아이디어 발굴 노하우도 배운 것 같아 큰 도움이 됐다"고 말했다.

한편 창의학교는 6월 말에 최종보고회를 개최해 우수 팀에게는 해외 배낭여행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발굴된 아이디어는 검토를 거쳐 도정에 반영할 계획이다. /정영수 기자

대기 자가측정대행업체 간담회

16일 전북도 보건환경연구원은 도내 대기분야 자가측정대행업체와 숙련도 시험평가 대비 측정기술지원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자가측정대행업체에 대한 대기분야 숙련도시험평가는 '환경시험·검사이 관 정도관리 운영 등에 관한 규정' 등에 따라 국립환경연구원과 연구원이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다.

주요 평가 목표는 측정분석기관에 대한 장비운영 능력 향상과 환경오염 물질 측정분석결과에 대한 정확성 및 신뢰성 확보이다.

이번 대기 숙련도시험평가는 측정장비 준비사항, 채취장치구성, 누출확인 시험, 시료채취과정, 시료채취숙련도, 결과산정, 시간준수 등의 항목을 대상으로 평가를 실시하고 있으며 올해에는 5월 중순경에 원일환경 등 3개 업체에 대해 실시할 예정이다.

보건환경연구원 관계자는 "도내 대기 자가측정대행업체에 대한 측정기술지원 간담회를 통해 측정분석 능력을 향상시키고 대기환경보전에 기여할 것이다"고 밝혔다. /정영수 기자



부처님오신날 봉축 법요식 불기 2560년 부처님오신날 봉축 법요식이 14일 금산사에서 열린 가운데 조실태공원주대중사와 송하진 도지사, 나선화 문화재청장이 현화 및 관불을 하고 있다.

전북자동차기술원·군산시, 군산산단 내 환경정화

전북자동차기술원과 군산시는 13일 푸른산단 가꾸기 캠페인의 일환으로 군산산업단지 내 환경정화를 위해 임직원 100여명이 구슬땀을 흘렸다.

이는 산업단지 입주기업과 근로자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해 최근 장기화되고 있는 경기침체의 분위기를 일신하고자 마련됐다.

전북자동차기술원 관계자는 "매월 1회 환경 개선의 날을 정해 산업단지의 내·외부 환경 정리에 힘써오고 있다"고 밝혔다. /정영수 기자

도, 불량계란 유통 특별합동단속

13일 전북도는 도내 유통되는 계란의 안정성 확보를 위해 이날 16일부터 25일까지 열흘간 '불량계란 유통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은 전북도와 축산위생연구소, 명예축산물위생감사원(민간인) 등 민·관 합동으로 총 29명이 투입되며 단속 대상은 식용란수집 판매업소를 포함한 일반 식육 판매업소, 농협마트 등이다.

주요 단속 내용으로는 식용란수집 판매업 무신고 영업 행위, 불량계란

판매·취급 여부, 표시사항 위반 등이다.

불량계란이란 부패된 알이나 기축분변이 묻어있는 등 이물질이 혼입된 알, 난각이 손상돼 내용물이 누출된 알 등을 말한다.

표시사항에는 유통기한과 생산자명, 판매자명 및 소재지, 제품명, 내용량(개수 및 종량) 등이 표시되어야 하며, 또한 '부정불량 축산물(식품) 신고는 1399' 등의 안내문구가 반드시 기재돼 있어야 한다.

오늘부터 25일까지

이러 식용란수집판매업은 해당 업종 신고 후 음식점 등에 직접 계란을 판매할 수 있으며, 식용란 거래내역을 축산물위생관리법에 의해 6개월간 보관해야 한다.

도 관계자는 "불량계란 유통은 도민 건강과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해당업소 점검과 유통실태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영수 기자

구독문의 288-9700

'새만금박물관 기본구상' 전문가회의 개최

새만금개발청(청장 이병국, 이하 새만금청)은 13일 서울 새만금 투자전시관에서 '새만금박물관 건립 기본구상'을 위한 전문가 자문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명품도시로 탄생할 새만금에 대한 기대감을 높이기 위한 새만금박물관의 건립은 올해 6월까지 기본구상을 수립하고, 내년 기본·실시계획을 거쳐 2020년 완공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다.

이번 '새만금박물관 건립 기본구상' 전문가 자문회의는 새만금방조제 초입지역(전북 부안군 변산면)에 건립될 새만금박물관의 역할과 전시내용

등에 대해 중점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새만금 개발이 계속 진행되는 점을 감안해, 일반 국민과 외국인 방문객, 투자자 등이 명품도시로 탄생할 새만금의 미래에 매력을 느끼고 기대감을 높일 수 있는 공간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새만금청 관계자는 "개발·소통을 강조하는 정부3.0 취지를 살려, 새만금박물관이 새만금을 대표하는 명소로 탄생할 수 있도록 외부 전문가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반영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정영수 기자

임을 위한 행진곡 '제창' 부터 허용?

보훈처, 박 대통령 지시 이행 위해 예외규정 고민

매년 5월 되풀이되던 '임을 위한 행진곡'에 대한 제창 여부가 초미의 관심사다.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13일 3당 회동에서 "국론 분열이 생기지 않는 좋은 방안"을 찾아보라고 지시함에 따라 국가보훈처는 15일 하루종일 허용 방안을 놓고 논의를 거듭했다.

보훈처의 고민은 법적 문제에 있다. 공식 기념곡으로 지정되지 않은 이 노래를 제창하는 건 법 규정에 어긋난다. 보훈처는 법 개정없이 제창부터 허용하는 방안을 고민 중이다. 예외규정을 만들어 박 대통령의 지시를 이행해보자는 데 방점이 있다.

이 노래는 지난 1997년에 정부가 5·18평주민주화운동을 기념일로 제정한 이후 2008년까지 기념식 본행사에서 제창됐다. 그러나 이명박정부 집권 2년 차인 2009년부터는 공연단 합창으로 변경됐다. 이후 정부는 가사의 일부분을 이유로 들어 '제창'과 '기념곡 지정'을 반대해왔다.

이에 반발한 피해자와 유가족들은 정부의 5·18 기념식에 참석하지 않고, 별도의 기념식을 진행하기도 했다. 여기에다가 야권을 중심으로 임을 위한 행진곡을 공식 기념곡으로 지정하라고 요구하고 있으나, 정부는 난색을 표해왔다.

박 대통령 지시에 따라 보훈처는 합의점을 찾기 위해 고심을 거듭하고 있다. 보훈처는 오는 16일 5·18 기념식 식순을 발표할 예정인데, 가장 주목되는 부분은 역시 본행사에서 임을 위한 행진곡을 제창할지 여부다.

이와 관련해 박승춘 국가보훈처장과 새누리당 정진석 원내대표가 지난 14일 만나 지정곡 제창 및 기념곡 지정 문제를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치권에서는 이번 기념식에는 예외 규정이나 특별 규정 등을 만들어 제창부터 허용한 뒤, 20대 국회의원법적 문제를 따지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박용주 기자

전주시민을 위한 무료 특강

한국스피치&리더십 컨설팅과 전북도내 6개대학 평생교육원 스피치과정원우회가 공동으로 전주시민과 도민을 위한 무료 공개 특강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본 행사는 삶의 즐거움과 명랑한 사회를 위하고 시민으로 행복하게 살아가기 위해 인성학 및 부부대화기법 특강으로 실시됩니다.



강사: 주선희

- 원광디지털대학 교수
- KBS 사회교육원 강사
- 인성학박사 1호
- KBS 아침마당 패널

강의주제: 행복을 부르는 인성



강사: 김양욱

- 한국스피치&리더십 컨설팅 대표
- 전주교육대학교 겸임교수
- 전북대 평생교육원 전담교수
- KBS 아침마당(3회) 출연자

강의주제: 부부대화기법

●일시: 2016. 5. 25(수) 오후 7시 ●장소: 전주 시청 강당
 ●문의전화: 231-6669, 285-6676 (주소: 전주시 완산구 노송광장로 10)

주최: 한국스피치 & 리더십 컨설팅
도내 6개대학 평생교육원 스피치과정 원우회

"전주매일신문은 항상 도민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 : 063-288-9700 www.jjmaeil.com